

박정희 선임연구원

## 요약

전 세계 탈탄소정책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일본 금융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 일본의 은행법 개정으로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이 활발하며, 장기간 운영되는 발전사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금융계획 경험이 많은 금융회사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음

- 전 세계 탈탄소정책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일본 금융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sup>1)</sup>
  - 일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을 '제로(zero)'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선언함
    - 이번 목표로 화력발전소가 더욱 축소되어 일본의 전력 공급은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상승 및 전력난 우려, EV 보급 지연 등 목표 달성에 한계가 많은 상황임
  - 경제산업성은 지역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계획하고 일본의 금융기관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많은 기업이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대출 등 금융 측면에서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 진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은 발전사업의 금융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강점이 있음
- 최근 일본의 은행법 개정<sup>2)</sup>으로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의 발전사업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개정된 은행법의 주요내용은 은행의 부수업무에 지역 활성화 및 산업생산성 향상 등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업무로 '지역 활성화 등 업무'가 추가되었음
  - 2022년 5월 돗토리현과 시마네현에서 영업 중인 산인합동은행(山陰合同銀行)이 지방은행 최초로 발전사업에 진출하기로 함
    - 자회사 형태로 설립된 '코킨에너지주식회사(こうぎんエナジー)'는 발전소를 운영·관리하며, 두 도시가 진행하는 제로탄소도시 계획에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임
  - 같은 해 6월 아바라키현의 상양은행(常陽銀行)은 '상양그린에너지(常陽グリーンエナジー)'를 설립해 바이오매스 등

1) SOLAR Journal(2022. 8. 22), “再エネ拡大にインパクトを与えるか、動き出した地域の金融機関”

2) 은행이나 신용금고 등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는 예금이나 정기적금, 대출 및 환거래, 부수업무, 타업 증권업무 등으로 타업 위험 배제 등의 관점에서 타업 금지 규제를 부과해 왔음

다양한 종류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계획 중이며, 7월 나가노현의 82은행(八十二銀行)도 발전사업과 지역의 무역 기능을 결합한 '82 Link Nagano(주)'를 설립하였음

〈그림 1〉 금융기관 자회사인 코킨(こうぎん)에너지의 지역내 발전사업



자료: 코킨(こうぎん) 보도자료(2022. 5. 12), "산인합동은행 자회사 설립에 관한 공지"

○ 발전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기간 금융계획 경험을 가진 금융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음

-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스&리스의 발전 자회사인 'SMFL MIRAI 파트너즈(FLMP)'사(社)는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발전회사로 개발, 출자, 운영을 비롯한 리스사업, 파이낸스 범위까지 폭넓게 사업을 운영 중임
  - FLMP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원별로 나누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 신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업개발팀 등과 같은 미들-백(middle-back) 부서를 두어 계약내용 체크 및 자산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실제 발전사업의 실적이 낮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기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FLMP사는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객에게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사업 실행가능 여부를 사업자의 시선으로 리스크를 판단할 수가 있음
- MS&AD 보험그룹의 아이오이 닛세이 손해보험은 중소기업에 대한 탈탄소정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탄소중립 도입'을 지원하기로 함<sup>3)</sup>
  - 지원내용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나 방법 이해, 자사의 상황 파악, 에너지 절약에 의한 이산화탄소 삭감, 재생에너지 도입까지의 서비스 메뉴를 가이드북에 기재하여 모든 업종이 도입하기 쉽도록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임
  - 그 외 '솔루션 체크시트'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상황이나 개별 과제를 간단하게 가시화시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크시트에 회답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임

3) 경제산업성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79.9%가 자사의 경영에 탈탄소정책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없거나 비용 측면에서 대처가 충분하지 못하였음